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: 2023년 7월
12일(수)

尹 대통령 부부, 폴란드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

- 한국과 폴란드는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
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-
-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가진 폴란드 동포사회의 더 큰 발전을 기원 -

폴란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7.12(수)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번 간담회는 폴란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.

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는 34년 전인 1989년 수교한 이래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왔다고 하고, 이제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.

윤 대통령은 지난해 90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교역 규모를 기록하고, 폴란드 현지에서 3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이라며, 방위산업,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이 한층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
윤 대통령은 수교 직후부터 주재원, 학계 인사, 문화 예술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폴란드 동포사회가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폴란드 동포사회가 코로나 유행 당시 술선수범하여 긴급 귀국과 백신 접종에 나서고,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피난 온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,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고 도우면서 멋진 동포사회를 가꾸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.

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을 서로 연결하고 동포들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고, 세계 어디에서든지 동포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

오늘 간담회에는 폴란드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-폴란드 부부(폴란드인 남편 라도스와브 솅작, 한국인 부인 전수현)의 공연이 있었습니다. 남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춘 부인의 가곡 ‘신 아리랑’은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였으며, 참석자들은 한-폴란드 양국의 우정이 한층 깊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. 또한 남편이 연주한 쇼팽의 ‘영웅’에 윤석열 대통령은 앵콜을 요청했으며, 남편은 쇼팽의 ‘녹턴’으로 화답했습니다. 연주를 마친 이들을 대통령 부부는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. <끝>